

‘안하무인’ 무등산 공군부대

수십년간 사용료 한푼도 안내고 정상 2m 깎아 1187m 무등산 1185m로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

보안·장병 피로 등 이유 들어 정상 개방엔 인색
권은희 의원 “문제점 공론화하고 이전 논의해야”

무등산 정상에 주둔 중인 공군 부대의 안하무인적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공포를 설치한다며 제 멋대로 무등산 정상 봉우리를 깎아버리는 등 훼손하는가 하면, 광주시 소유 토지를 사용하면서 수십년째 사용료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그러면서도 제 것인양 ‘장병이 힘들어지니 부대 정상 개방을 못하겠다’는 억지 논리를 펴 ‘국민’을 위한 군(軍) 존재 의무를 망각했다는 공분이 일고 있다.

26일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군 제1방공유도탄여단 예하 방공

포대는 무등산 정상에 주둔하면서 무등산 정상(1187m)을 깎아 방공포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공포 설치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위해 무등산 정상 천왕봉을 2m 깎았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무등산 정상 높이도 달라졌다.

공군 부대가 국민이 즐겨 찾는 산 정상부를 임의적으로 훼손하면서도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여론이다.

공군은 또 광주시 소유 부지(21만6894㎡)에 주둔하면서도 사용료를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방

공포대의 무등산 내 점유 면적은 공군 전체가 점유한 전국 공·사유지 면적의 57%에 이른다. 해당 부대 주둔지는 광주시와 화순군, 사찰이 소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날 공군부대와외의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무단 점유 사유지에 대해 최근 5년간 1024억원을 부담했는데, 무등산만 50년간 공짜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 때문에 공군 부대가 시민 소유 땅을 점유하면서 무등산 정상 개방에 대해 자기 땅인양 ‘불가’입장을 내놓는가 하면, 자신들이 허락해 ‘개방한다’는 생색내기식 주장을 펴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광주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외의 어설픈 행정이 군의 ‘막가파식’ 행동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땅 주인으로 합리적 문제점을 제기하지도 못하는가 하면, ‘정상 개방’ 등 시민 입장에서 필요한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표를

의식한 정치 논리로만 접근, 부지를 공짜로 내주는 ‘굴욕’적 계약을 체결해 시민 불편만 불러왔다는 것이다.

광주시가 특별한 사유 없이 5년마다 공군 부대의 부지 사용 승인을 갱신해준 배경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도 공군부대의 무등산 정상부 훼손을 알면서도 훼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은희 의원은 “1966년 미군이 광주 군 공항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한 것을 시작으로 무등산 정상에 주둔중인 공군부대가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며 “무등산에 주둔중인 공군부대 이전을 위한 문제점을 공론화해 무등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행동을 벌여나갈 시기”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과학축전 신기하고 재밌어요”

26일 광주 북구 오룡동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2014 광주과학문화축전'. 관람객들이 광주 과학고에서 준비한 슬링펄프(낙차 없는 강이나 개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전력 펄프)를 체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세월호 결심공판...이준석 선장 등 4명 사형 구형될까

광주지법서 15명 공판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한 1심 결심(結審) 공판이 27일 열린다. 검찰이 이 선장 등 4명의 승무원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 만큼 법정형량인 최고 사형

을 구형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연)는 27일 오후 지방법원 201호 형사법정에서 이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이란 검찰이 형사피고인의 형

량을 구형(求刑)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하는 선고 직전의 재판을 뜻한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논고문을 통해 이들이 승객 구호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함 등을 집중 부각시켜 중형 선고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 선장 등 4명에 대해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묻는 상징적 의미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지, 나이 등을 감안한 실질적 구형을 할 지는 법조계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세월호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빛원전 세관 파손 원인 규명도 없이... 4000억원 들여 교체 추진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3·4호기의 증기발생기 세관 파손에 관한 합리적인 원인 규명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한빛원전과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18년 한빛 3호기 증기발생기 교체를 시작으로 2019년께 한빛 4호기도 증기발생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소요 예산은 4000억원 선으로 한수원은 다음달 안으로 두산중공업과 계약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문제는 설계 수명이 40년인 증기발생기가 ▲설계 수명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교체해 되고 ▲증기발생기 세관 파손에 관한 합리적인 원인 규명도 없이 재질 탓으로만 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체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한울 3·4호기의 증기발생기 세관 파손이 잇따르면서 관막을 비율이 허용치에 근접하자 한수원은 지난해 4000억원을 들여 세관 재질을 향상(인코넬 600→690)시켜 증기발생기를 교체한 바 있다.

그러나 원자력 전문가들은 세관 파손의 원인으로 세관 재질 뿐만아니라 설계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원전 특성상 원자로 1개당 증기발생기가 2대인 탓에 증기발생기가 3~4대 떨어진 여타의 원전과는 달리 세관에 과부하가 걸려 파손으로 이어지거나 증기발생기와 연결된 펌프의 개수 등 2차측 조건에 따라 파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관 파손 원인을 규명해야할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파손 부위(세관 상단)와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파손 부위(세관 하단)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도 납득할만한 규명작업도 없이 신규 교체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게 원자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원자력 전문가는 “세관 파손에 따른 관막을 비율이 높아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증기발생기를 교체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면서도 “외국으로 수출한 원전인데 재질만 바뀌서 교체했다가 또 파손이 잇따르면 그뎐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생아 치료 소홀 사망케 한 의사 실형 선고

종합병원을 찾은 신생아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입원 환자의 치료를 소홀히해 오진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광주 한 대학병원 의사 A(49)씨에 대해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또 전공의 B(3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 17일 구도,

복부 팽만 등으로 입원한 생후 이틀 된 아이의 증상을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수술 등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천성 거대결장’ 등으로 의심될만한 환자 증상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적절한 치료를 소홀하게 해 몇 개월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 판단은 A씨 등의 ‘선천성 거대 결장’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재판부는 “A씨 등이 ‘선천성 거대 결장’에 대한 확진을 얻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검사를 병리의에게 의뢰하기만 했다면 피해자 생명은 별도 위험을 수반하는 침습 행위도 없이 구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은 대학병원 소속 의사와 전공의로 지역민들이 병원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를 생각하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치료행위를 했어야 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

“경찰 덕택에...” 25년만에 아버지 묘 찾은 70대



○...경찰이 수십년간 찾아보지 못했던 조상 묘를 찾아달라는 70대 할아버지 요청을 받고 산 중턱을 헤집고 돌아다니던 끝에 ‘상봉’을 성사시켜 눈길.

○~2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김모(72)씨가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께 광주 시 남구 주월파출소를 찾아 “짚봉산에 있던 부친 묘를 20여년만에 찾아왔는데 도

저히 찾을 수 없겠다”며 도움을 요청. 김씨의 설명을 토대로 이틀간 해당 산을 살피고 살피고 돌아다니던 끝에 김씨 부친으로 추정되는 묘지를 발견했다는 것.

○...김씨는 “서울로 옮긴 뒤 살기 팍팍해 오랫동안 찾아보지 못하다 이제서야 왔는데, 경찰 도움으로 무사히 찾을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수기동 제일AP 매매”

- 29평 - 12층, 전체 올수리, 주거겸 사무실
매매가 7200만원
- 77평 - 20층,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전용
매매가 2억 7000만원
- 주인직매 : 010-3605-5000

“월산동 근린주택”

- 수리중 입니다.
- 싸게 사서 싸게 팔 생각입니다.
- 곧 공개합니다.